



코아로직

‘변화를 사랑하는 자’의 끝없는 도전

코아로직 황기수 대표

지난 8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대회’는 장차 우리 경제가 지향할 지표를 설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행사였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던 대기업과 벤처기업 CEO 44명 중에는 코아로직 황기수 대표(51)도 있었다. 미래의 국가경제를 견인할 10개 성장산업군 중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주역으로 초청받았던 만큼 그가 쌓아온 경력과 공헌을 기념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황 대표는 메모리분야에 주력했던 초창기 반도체산업현장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편안했는지 모를 대기업 연구실을 박차고 나온 그는 늦깎이 유학을 떠났다.

컴퓨터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 그는 GE연구소에서 근무했다. 80년대 말은 국내 기업들이 한창 해외과학자를 유치하는 붐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런 시류를 타고 39살의 나이로 현대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중역으로 스카웃되던 그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연구인력들을 지휘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로 각광받았다.

“미국에서 막 안정을 찾을 무렵 귀국했어요. 아마도 제 안에는 ‘변화를 사랑하는’ 기질이 있나 봐요.”

변신은 계속되었다. ‘더 이상 대기업에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황 대표는 1998년 4월 코아로직을 창업했다. 40대 후반의 나이로, 자본금 2억원에 직원 4명의 단출한 회사를 차린 것이다. ‘스핀 오프’ 식도 아니었던 데다가 악화된 경기가 겹쳐 6개월도 안 되어 자금이 바닥나 버렸다. 당시엔 벤처캐피탈도 없었던 때라 고전했지만, ‘시스템 IC 2010’ 이라는 비메모리 국책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멀티미디어기능의 모바일용 카메라 솔루션 양산

창업 초기에는 지문인식장치, PC카메라 등에 치중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시장이 성숙되지도 않았고 이윤이 박했다. 휴대폰 시장 활황을 예견한 황 대표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로 시야를 좁혔다. 이 기술은 하나의 칩(반도체) 안에 모바일용 화상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옵션을 구현하는 것이다. 휴대폰 수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휴대폰 안에 장착되는 코아로직의 3세대 이동통신용 카메라 솔루션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기도 한 '시스템 온 칩(SoC)' 산업의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다.

SoC분야라면 황 대표의 본령이 아니었던가.

“삼성, LG, 현대 세 그룹이 1980년대 후반 이 분야에 몇 천억 대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요. 그동안 길러낸 인력들이 백 여개가 넘는 SoC 회사로 독립했어요. 앞으로 3~4년 후면 이들이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디지털 이미징 칩으로 일본의 히타치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인 생산진용을 갖추는 데만 2년 정도가 걸렸고, 작년 4/4분기에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까지 장장 5년여를 연구개발에만 투자해야 했다.

“칩 샘플 하나 얻는 데 가공비용만 수십억이 들 정도니까요. 카메라 솔루션만 해도 일본내 내수가 아직은 많아서 그렇지 그들이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게다가 생산력을 가진 중국이 쫓아온다면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코아로직뿐만 아니라, 'MCS로직' 등 칩으로만 승부해서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들며 내년 쯤 미국 일본 등과 본격적인 한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회로가 한 눈에 보이듯, 경영도 무조건 투명해야

황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을 물었다. 주저없이 “무조건 투명해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반도체 설계의 예를 들어 보죠. 누군가 실수를 그냥 덮어두는 바람에 그 복잡한 회로에서 오류를 찾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주입식에 혼나기만 하는 교육을 받아서인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것. 사실을 직시하는 엔지니어적 기질이 호방한 오픈 마인드와 행복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해서 솔직히 피곤합니다. 새로이 적용하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이걸 자식한테까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제빵기술 같은 거 말입니다.”

직장인에서 학자로, 다시 대기업 중역에서 벤처사업가로, 숨가쁜 도전의 연속이었기에 조금은 지친 것일까. 그러나 황 대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다.

“회사가 안정되면 회사경영보다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요. 백 여개 넘는 SoC회사간 M&A나 인큐베이션 가이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해외네트워크를 연결 시켜준다든지...”

거기에 그가 덧붙인 것이 있다. 한번도 레슨을 받지 않고 싱글을 올린 골프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프로에 데뷔하는 것이다! 골프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골프광인 그는 지금도 주중에 두 번은 꼭 시간을 내어 필드를 찾는다. '엔지니어출신 CEO의 독학 프로 데뷔', 이 벤처다운 소식이 들려올 날이 언젠가는 꼭 있을 것만 같았다. **KOVA**



도심 공항타워 6층에 위치한 코아로직 연구소에서 황 대표를 만났다. 회로판들이 어지러히 널려져 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도면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실제로 휴대폰이 작동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칩을 테스트 하거나 설계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 CEO의 현장 ●

“우리 칩을 쓰는 휴대폰 모델 수만 90여 개가 넘습니다. 엘지,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쪽 메이저 회사들도 우리 칩을 쓰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대학시절 자신이 공학에 취미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다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준비하는 동안 우연히 청계천에 있는 TV 수리학원을 다니면서 엔지니어링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어 버렸다.

나훤이 부품들을 만지는 그의 손길에서 집무실의 책상보다 연구실을 더욱 편안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